

# 책의 주인과 소유권

곽영직

수원대 교수 · 물리학

벌써 몇 해 전의 일이다. 어떤 방송국에서 어린이 시간에 '책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토막극을 내보낸 적이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를 둔 어머니가 딸과 딸의 친구에게 책을 시주하면서 사이좋게 보라고 당부했다. 두 어린이는 같이 읽기도 하고 돌려가며 읽기도 하면서 사이좋게 책을 읽었다. 그런데 두 어린이가 책을 다 읽자 그 책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가 생겼다.

둘은 서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웠다. 책을 사준 어머니의 딸은 그 책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마가 그 책을 함께 읽으라고 했지 친구에게 주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친구의 생각은 달랐다. 책을 사준 사람은 친구의 어머니지만 친구를 잘 도와주었다고 자신에게 사주었다는 것이다.

두 어린이의 주장은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잘못하다가는 두 어린이의 우정마저 금이 갈 판이었다. 두 어린이는 먼저 책을 사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두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난처해하면서 둘이서 잘 해결해보라고 했다. 이번에는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다.

책의 주인은 그 책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읽고 이해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이 이미 그 책을 읽었다면 그 책은 누구에게 있든지 이미 두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그 책을 가지려 하지 말고 다른 친구에게 주어서 읽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선생님의 제안이었다. 두 어린이는 선생님의 말대로 하고 이전보다 더욱 친해졌다.

오래 전에 본 이 어린이극의 내용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책의 진짜 주인은 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읽고 이해한 사람이라는 평범한 진리 때문이다. 어쩌다 시내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서점에 들러 언젠가는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다 쌓아둔 책이 방의 한 구석을 차지 할 정도로 늘어났지만 정작 읽지 못한 책이 더 많다. 나는 그 책들을 볼 때마다 그 극의 내용을 떠올린다.

그동안 몇 권의 교양과학책을 쓰면서도 이 토막극을 항상 생각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과학책을 사는 사람 중에 책을 끝까지 읽는 사람은 2%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학책을 산 사람 중의 2%만이 책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과학책을 쓰는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읽히는 과학책을 써보기로 했다. 그동안 몇 번의 시도는 실패였던 것 같다. 책을 읽는 큰 재미도 전해주지 못하면서 쉽게 만든다고 내용만 허술해지기도 했고, 내용을 충실히 한다고 읽히지 않는 책을 만들기도 했다. 나는 앞으로도 대중들을 위한 과학책을 계속 쓸 생각이다. 책을 쓸 때마다 이번에는 기어코 책을 사는 사람을 주인으로 만드는 그런 책을 써보겠다고 마음먹지만 잘 될지는 알 수 없다. 책의 법적인 소유자가 동시에 내용을 소유하는 그런 책이 많이 나올 때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출판업계가 살아나고, 책을 매개로 한 지식산업이 번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초점 2 할인판매 확산으로 출판계 좌초 위기**

강남 · 신도시 중심으로 할인판매 경쟁

**4 '정가제' 둘러싼 해외 각국의 표정**

영국/미국/유럽/일본

**6 전근대적 거래관행, 투명하게 개혁돼야**

유통구조 재편,  
어떻게 할 것인가

**7 '발등에 불'로 떨어진 유통망 전산화**

**8 유통구조 전문화로 막힌 숨통 터줄 때**

**10 후진성 드러내는 우리나라 '도서관 통계'**

특집/도서관이  
제자리 찾아야  
출판이 산다

**11 껍데기뿐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김재윤**

**12 건전한 '도서관 문화' 무엇이 걸림돌인가**

**13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내가 겪은 외국 도서관 14 일본 쇼와여대 '근대문고' 도서관 — 김난주

프랑스 파리의 보부르 도서관 — 황의조

15 중국 북경사범대학 도서관 — 이창호

**저자 초대 16 《조선 위향문학사》펴낸 허경진 교수**

**얼굴 17 《존재와 시간》번역한 이기상 교수**

**문학 시론 18 군살 박힌 통념 깐 '재일한국인' 문학 — 윤상인**

**출판학제 19 서점가 '고전읽기'의 새로운 바람**

주제가 있는 책읽기 20 '하나됨'으로 함께 커지는 통일의 길 — 강정구

인터넷 출판향해 21 랜덤하우스의 어린이책 홈페이지 — 박광렬

가상 대담 22 '영혼의 투시자' 도스토예프스키와의 대화 — 석영중

인간의 본질 사유한 위대한 작가

**해외 탐방 24 책의 열정으로 달아오른 문화축제 — 최연구**

**제18회 파리국제도서전을 돌아보고**

**만화 25 책과 오대리 — 박시백**

서평 26 이삼성 《20세기의 문명과 아만》 — 전상인

김영민 《진리·일리·무리》 — 이왕주

27 호쇼 마사오 외 《일본현대문학사》 — 김춘미

28 최운식 · 김기창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 서정오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 관계사 연구》 — 김기협

29 애쉬워드 《자연의 경제학》 — 이정전

이 책 그 사람 30 《중국인·중국문화 에세이》펴낸 허세욱 교수

《바둑의 발견》펴낸 문용직씨

31 《한수, 영호의 예술》펴낸 송인갑씨

32 새 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다시 보는 사진집 48 ⑦ 강운구 《우연 또는 필연》

표지/봄날 책읽는 풍경 (사진 · 한준호 기자)